

칼럼

김 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청문회, 기자간담회

9월 2일(월)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246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선하고 원내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조국(曹國)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청해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시간과 질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제한 기자 간담회라고 한다.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가 아닌 기자 간담회를 치렀던 여당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초유(初有)의 일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처, 딸은 빼고 동생을 증인으로 차택하자고 해서 가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9월 2일과 3일, 2일 간 잡혔던 청문회 일정이 무산되었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은 공격적으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여당은 후보자를 방어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타협하여 인사 청문회를 진행시켜야 한다.

인사 청문회가 열려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안했다고 후보자에게 짜이고, 여야(與野) 의원 간에 고성으로 설전(舌戰)을 벌이며 오전을 보낸다. 오후에는 물었다, 안했다, 기억이 안난다, 관

계없다, 사생활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 가족과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죄송하다 등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한다. 야당 의원의 난처한 질문은 여당 의원의 엄호를 받으며 어물어물 피하며 어떻게 해서 든지 하루만 넘기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 청문회 청문위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고,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 태국 등 동남아시아 3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곧 밟을 예정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기습 침략, 국민 무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민 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다.

기자 간담회는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의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좋으나, 기자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권도 없고, 증인 요청이나 증인 심문권도 없다. 부인하거나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해도 듣고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가 없다. 짧은 시간에 후보자의 일방적인 설명과 해명으로는 국민적인 의혹이나 상식에 어긋난 많은 특혜와 비리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의혹이 늘어나거나, 후보자의 뻔뻔스러운 모습에 역겨움을 느낄 수도 있다.

짧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어서 죄송하다.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대학생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 놓고 국민적인 의혹과 사실로 드러난 특혜와 비리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민감이 교차했다.

첫째, 한 번 시동(始動)이 걸리면 중지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권력의 속성을 보았다. 본인도 그렇지만, 속해 있는 진영(陣營)의 주동적(推動的) 논리와 분위기를 바꾸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다가 죽더라도 갈 데까지 가보고 싶은 것이 인간 심리이고, 자존심이기도 하다.

둘째,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종합생화가 조국 후보 사퇴와 서울대 교수 사퇴, 조국 딸 대학 입학과 장학금 특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2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아무리 사회가 혼탁해도 젊음과 열정, 지성과 애성을 갖추고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국민적인 양심과 정의를 대변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도 조국 후보의 고2 딸의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을 부정하고 허위이며 범죄라고 단정하고 있다. 담당교수에게 논문 취소를 요구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고 있다.

셋째,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치성하는 여론의 두 배가 된다.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산 십대(2030)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4050)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6070)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 득표율이 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4월 총선에서 현재의 국회의원 6석에서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정의당의 기준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이 있다'고 말이 바뀌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국민은 평소에는 힘이 있지만, 선거 때 투표가 최대의 무기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경험과 힘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깨어있는 눈으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회 없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社說

5·18 사적지 관리 강화해야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 건물이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적지 보존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적십자병원은 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한 곳이다.

현재 병원 소유자인 서남학원 재단은 1995년 병원을 인수해 서남대 병원으로 운영하다 2014년 적자 등으로 이유로 폐쇄했다.

이후 방지된 병원 건물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재산매각 승인을 받고 공개 매각 절차를 앞두고 있다.

특히 건물과 공간이 남아있는 곳을 보존하는 등 향후 도시의 비전과 연결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보존 관리는 광주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유산이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서점 옛터와 광주MBC 옛터, 남동성당, 들불야학 옛터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내년 발주 예정인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에 이러한 사유재산 사적지를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은 2016년 수립 당시 광주시가 국군통합병원과 505보안부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관계 당국은 그때그때 일이 터지면 입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적지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건물과 공간이 남아있는 곳을 보존하는 등 향후 도시의 비전과 연결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 | |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 기상예보 | 131 |
| ▲ 응급질병상담 | 1399 | ▲ 법률구조상담 | 132 |
| ▲ 미아·가출인 신고 | 182 | ▲ 인광일코율 상담센터 | 222-5666 |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 광주 남성의 전화 | 673-9001 |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 수도 고장신고 | 121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 전기고장 신고 | 123 |
| ▲ 응급의료센터 | 1399 |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야생 진드기 주의하세요

야생진드기 활동시기인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및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텁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오한, 근육통, 기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증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5~10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이다.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풀밭 위에 웃을 벗어 두거나 놓지 않기, 둘째 야외 작업시 작업복 입고 장화신기, 셋째 야외 활동시 모자, 토시,

긴팔, 긴바지 입기, 네번째 야외 활동 후 세탁 및 사워하기 등이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과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최성영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대표 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 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